새마을운동중앙회

미래 세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뿌리와 새싹 리더

RECYCLED PAPER
PRINTED WITH SOY INK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ISSUE NO.13
ISSN 2799-9343

새벽종 2024 03+04 제13호

매거진 〈새벽종〉 e-Book

교보문고 알라딘

밀리의서재 예스24

Magazine

새벽종

지금, 만나봄

새마을운동을 이끄는 새마을지도자

2024 03+04 제13호

새마을 중인
중앙회원단체장과
시·도새마을회장

새벽종 소리
2024년 새마을운동
4대 핵심 과제

새마을 人터뷰
진뚜루마을공동체
부산 북구부녀회장

youtube.com/@saemaul
instagram.com/letssaemaul
facebook.com/letssaemaul
blog.naver.com/letssaemaul

지금, 만나봄

새마을운동의 목표와 핵심 과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지만,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마을지도자의 헌신과 열정입니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새마을지도자의 사명감과 의지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전해져 공감대를 이루면서
새마을운동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ONTENTS

2024 03+04
제13호

발행일
2024년 4월 25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전문수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디앤씨컴퍼니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THEME

새마을운동을 이끄는
새마을지도자

06 새마을 줌인
신임 회장단 메시지
중앙회원단체장과 시도새마을회장

12 새벽종 소리
새로운 새마을운동 그 너머를 향해
2024년 새마을운동 4대 핵심 과제

16 반가운 울림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자세를 말하다
유경철 소통과 공감 대표

18 함께 공감
역사를 바꾸는 새마을지도자의 역량과 지도력
박용기 영남일보 중부지역본부 기자

20 새마을 타임즈
갯마을을 농지로 바꾼 기적

22 새마을 人터뷰 ❶
우리 손으로 활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다
2023 우수마을공동체 경진대회 '최우수'
강원 평창군 진뚜루마을공동체

26 새마을 人터뷰 ❷
주민과 함께, 이웃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세상
유선희 부산광역시 북구부녀회장

30 청년, 미래 그리고 새마을
나를 성장시키는 새마을운동
2023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 '최우수'
충북 청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

34 지구촌새마을운동
세계인이 함께한 새마을운동
숫자와 키워드로 보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마을

38 희망 에세이
칭찬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다
새마을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40 쉼표 여행
역사의 숨결과 현대의 활력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 중구

44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탄소중립 패션이 뜬다
청바지로 멋과 환경을 지키자

46 새마을 포커스

58 새마을 라운지

신임 회장단 메시지
중앙회원단체장·시도새마을회장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이끌어갈 중앙회원단체장과 각 시도새마을회장이 선출됐다.
경험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낯익은 얼굴과 신선한 바람을 불어올 새 얼굴까지
모두가 진일보한 새마을운동을 다짐했다.

중앙회원단체장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회장 양윤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는 지역사회 어려운 일, 힘든 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에 앞장섭니다. 새마을운동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역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와 감염병 예방, 자원재활용 등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새마을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위한 지혜와 격려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안으로는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 밖으로는 새마을지도자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 곳곳에서 더 인정받는 새마을지도자로 거듭나길 부탁드립니다.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회장 김정임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는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와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소통의 단절, 이기주의 확산, 세대·지역·계층 간 갈등으로 사회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배려와 존중을 통한 여성의 리더십은 이러한 사회분열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마을운동의 실천을 위해 새마을부녀회는 자기개발을 통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마을운동 실현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여러분들의 고견에 언제나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전문수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회는 단순히 인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산업기술을 중요시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두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정보기술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21세기는 국가통치의 시대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공동운영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계발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직장·공장이 발전하고, 나아가 직장·공장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공장새마을운동의 소명이 막중합니다. 직장·공장협의회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자랑스러운 직장문화 창출이라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김종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1961년에 설립되어 전국에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설치·육성하고 도서와 재능기부를 통한 지식 보급으로 국민의 선진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지난 63년여 동안 국민독서진흥을 위한 독서문화운동을 추진해 범국민 독서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문고는 '지식과 문화의 나눔, 기본이 바로 서는 독서문화운동 실천'을 통해 으뜸 문화선진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가까이서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추진하여 독서 강국, 문화선진국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 배진호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는 순수한 봉사 정신과 열정적인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새마을운동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와는 달라진 사회에 맞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은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공동체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로 새마을운동의 가치 실현을, 청년들이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회장 신유빈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맞추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새마을정신을 통해 더욱 밝은 미래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에 열중하는 요즘 청소년과 청년은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부모님 시절부터 이어진 함께 잘사는 따듯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도전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70여 개 대학새마을동아리의 회원들은 각자의 전공을 살려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추진하며 대학 봉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서울특별시새마을회 회장 김연포

사랑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새마을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발전을 위한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마을지도자의 다양성 회복과 창의성 존중입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전진입니다. 셋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저력을, 우리 새마을가족의 무한한 가능성을, 언제나 국가적 영광의 밑바탕엔 새마을운동이 있었고 그 동력은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서울특별시새마을회가 그 영광을 이어갈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새마을회 회장 백옥자

새마을가족 여러분! 부산광역시새마을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마음 한편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43년 동안 새마을운동만을 위해 뛰어온 저의 열정을 이제는 새마을운동 현장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쏟으려 합니다. 항상 회원에게 귀를 기울이고, 실천이 가능한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행하며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반세기 역사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부산광역시새마을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높이 비상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운동, 모두 함께하는 신명 나는 새마을운동을 꿈꿔 봅니다.

대구광역시새마을회 회장 최영수

다시 한 번 새마을운동 현장에서 봉사하고자 대구광역시새마을회 회장으로서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해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신뢰를 바탕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펼쳐지는 국민운동입니다. 임기 동안 조직의 신뢰를 한 단계 높여 젊은 청년들과 시민이 동참하도록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우간다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에 새마을정신이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우간다가 아프리카 대륙의 새마을운동 거점 국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운동 종주도시의 대구광역시새마을회가 모범적인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 또한 다짐합니다.

인천광역시새마을회 회장 이황일

사랑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새마을회장으로 믿고 맡겨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우리나라가 가난과 좌절의 굴레를 극복하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자랑스러운 국민운동입니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으며, 친환경 생활 정착과 세대 간 연대와 참여를 확대해 새마을운동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300만 명의 인천시민에게 새마을운동의 시대정신을 널리 홍보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세계 초일류도시를 향한 '인천의 꿈'을 이루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새마을회 회장 류재선

지난해 우리는 새마을지도자의 노력으로 여러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사에 이르기를 '끝은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목표를 향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 목표는 미래의 세대인 청년연대와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외연을 확대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조직화합 그리고 적극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한 재정자립입니다. 여기에 광주의 새마을운동을 펼쳐나고자 합니다. 꿈은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을 줍니다.

대전광역시새마을회 회장 박영복

대전광역시새마을회장으로 첫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임기 첫해 대전광역시새마을회의 화합과 홍보, 그리고 조직 확대를 통한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발전하는 대전광역시새마을회를 만들고자합니다.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탄소중립 실천·연대강화,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모습으로 변모하는 미래지향적인 새마을운동의 재정립을 위해 대전 관내 9개 대학새마을동아리와 구별 청년새마을연대가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여 새마을운동을 통해 함께 대전광역시새마을회에 새 바람이 불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새마을회 회장 정대식

시·도마다 새로운 임원들이 구성되어 지역새마을운동을 활기차게 이끌어 갈 것이라 기대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새마을회는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조직과 함께하는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 결속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별 연말 평가를 시상에 반영하는 등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보람차고 자긍심 넘치는 울산의 새마을운동으로 발돋움하도록 사업 활동을 흥겹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회장 김영제

최근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정부 청사로 들어가는 길목과 세종시 산하 건물에 걸린 새마을기를 볼 때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분위기와 시선이 달라졌음을 실감합니다.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는 세종시와 밀접한 연대를 통해 역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와 농협의 후원을 받아 농촌 빈집 철거 후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세종미래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민간추진위원회 운영을 맡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 핵심과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과 돌봄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이호경

우리 사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마을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늘지고 힘든 이웃을 따뜻한 손길로 챙기고,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 용기가 납니다. 1,300만 명이 사는 경기도의 새마을회장이란 중책을 맡고 보니 책임감과 무게가 어깨를 눌러옵니다. 그러나 이 거친 세상을 함께할 새마을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설렘도 있습니다. 경기도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꿈도 희망도 목표를 같이 이뤄보겠습니다. 우리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 회장 **홍순선**

사랑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강원도 새마을운동의 미래를 열어갈 중책을 맡게 돼 영광입니다. 또한 선배, 동료들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가족의 다양한 지혜와 역량을 집중시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하는 자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도새마을회의 재정 안정을 이룩하여 새마을가족의 사기를 높이고, 도민 모두에게 그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른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나아가 성원을 보내주신 새마을가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충청북도새마을회 회장 **남재호**

지난 54년간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온 새마을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충청북도새마을운동의 미래를 향한 벅찬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충북새마을가족의 뜻을 모으고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참여로 조직의 화합을 이끌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웃을 보듬겠습니다. 아울러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 향상에 앞장서고 대학새마을동아리와 청년새마을연대의 기반을 견고히 다져 미래 새마을운동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대와 지역, 성별을 떠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충청북도새마을운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 **성낙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충청남도의 새마을운동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주요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의 정비를 위한 교육과 화합의 시간을 자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점사업으로 생명의 삶터를 살리는 탄소중립 운동을 실천하며, 공동체 운동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청년이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신규 도회관 건립 등 수익형 자산 형성에 힘을 기울여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마을운동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고난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 회장 **이상수**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초대 새마을회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보람과 성과로 진일보하는 새마을운동을 만들겠습니다. 새벽종 소리에 심장을 일깨우고 높이 걸린 새마을기에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라는 긍지를 새겨 온 선배 새마을지도자님의 헌신을 이어받아 젊음과 열정, 변화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전북, 특별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새마을운동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단체로 거듭나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의 전·성·기('전'북과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운동)를 일으키겠습니다.

전라남도새마을회 회장 **양재원**

새마을가족 여러분! 새마을운동의 첫발을 내딛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전라남도새마을회가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올해는 새마을운동의 리더인 회장단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으로 서로 소통하는 전라남도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다가올 100년의 새마을운동이 잘사는 대한민국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에 충실히 임하고 본분을 다하고자 합니다.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새마을지도자로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새마을회 회장 **서중호**

경상북도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17만여 명의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들이 하나로 화합하고 새로운 각오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에 중대한 역할과 임무를 맡고 있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다시 새마을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상의 전환과 세대 간 소통을 통하여 시대에 맞는 새마을운동과 국민이 원하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정신운동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근면 성실함과 스스로 일어섬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경상남도새마을회 회장 **윤원섭**

새마을운동은 사회적 요구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새마을회는 지역 현안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농촌 영농폐기물 및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연대 조직 활성화'로 합천 시설관리공단의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축구교실'과 남해 새마을금고의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노래방' 등과 같이 직장 내 동아리를 영입해 조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공단을 비롯해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지역별 교육과 사업을 병행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회장 **김창기**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새 시대에 걸맞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핵심 과제에 맞춰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어린이가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앞장서며, 탄소중립 실천 운동으로 제주의 현안 과제인 2040 플라스틱 제로섬 만들기와 전국 70만 그루 나무 심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으로 현지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현안을 새마을운동으로 해결하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따뜻한 세상과 미래로 빛나는 제주 만들기에 2만여 명의 제주도 새마을회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북5도새마을회 회장 **조성원**

이북도민 및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북5도 새마을지도자들은 '통일 후 내 고향 재건은 새마을운동으로!'라는 목표 아래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애향·애국운동,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사업,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며, 새마을 청년연대를 구성하고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를 확보하는 등 회원 배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도민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새마을운동 그 너머를 향해

2024년 새마을운동 4대 핵심 과제

1970년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이어진 지 어느덧 54년이 흘렀다. 54년의 세월 동안 새마을운동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 왔다. 지난해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비전으로 새롭게 전개된 새마을운동은 이제 미래 새마을운동을 위한 튼튼한 기틀을 마련했고,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마을운동 '임원 선임의 해'로서 역량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교체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마을운동의 내실을 다져갈 계획이다.

글. 편집실　사진. 홍보실

새로운 변화로 도약의 발판 마련 미래를 준비하는 새마을운동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한 1970년대. 당시의 새마을운동은 '잘살기'를 목표로 농촌의 기초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점차 확산되며 도시와 직장, 공장, 학교에 이르기까지 삶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새마을운동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적 갈등과 분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과 재해 급증 등 수많은 위기와 마주하고 있으며, 세대 간·지역 간 갈등과 분열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도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또한 지난해 전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인 유행병의 공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대내외적인 경제난과 안보 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재난재해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4년 새마을운동 4대 핵심 과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	• 새마을 사회안전망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주민참여형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 확대 • 독서생활화로 창조적 지역문화 창달 • 성숙한 자유민주시민의식 제고 • 세대, 지역, 도·농 간 교류협력 확대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재해 예방·복구활동
탄소중립 실천·연대 강화	• 친환경생활 실천 정착 •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로 '순환경제' 실천·홍보 • 산림, 해양, 토양 등 자연·생태 보호·관리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	• 현지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관리체계 내실화 • 외국인 새마을교육 내용의 다양화 및 교육기회 확대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글로벌 새마을 파트너십 강화
새마을운동 추진 역량강화	• 새마을지도자·회원 확충 및 회원단체 간 연대·협력 강화 • 청년층 참여 확대와 해외 봉사단 운영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전문성 확보와 기능 고도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수많은 국가적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 온 새마을운동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할 때이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기치 아래 사회적 갈등 해소와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해 구호가 아닌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는 대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 #1

새마을지도자들은 외환위기,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코로나19, 경북·강원지역 화재 등 국가적 재난상황마다 솔선수범하며 사회 통합을 위해 선봉에 섰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은 '나'에서 '우리'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공동체의식 결여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심화하고 있는 시대적 현상을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돌보며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한다.
상생과 통합의 공동체 운동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강원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또한 지역 간 도농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효과적인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가칭 '새마을안전지킴이'를 운영하며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함께 살아갈 건강한 지구 만들기 탄소중립 실천·연대강화 #2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돌고 돌아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바다거북의 몸속에서 발견되고,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 북극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인류도 마찬가지. 폭염이나 폭설,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도 높아지고 있어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인류의 종말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점점 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역시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사이클링, 나무심기, 나눔 장터 운영, 덜 쓰고 아껴 쓰는 생활 속 실천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순환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산림, 해양, 토양 등 자연·생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도로변 및 유휴지에 나무 심기, 꽃길 만들기 등을 통해 깨끗한 공동체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탄소중립 실천 경진대회 및 공모전, 환경보호 캠페인, 친환경 생활 교육 등으로 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환경보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고 있는 전남 여수시 새마을지도자

지역에서 시작해 글로벌로 향하다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 #3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뤘고, 이제는 지역사회개발 운동의 성공 사례로서 세계가 새마을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 빈곤퇴치 사업 모델로 정했으며, 2015년에 열린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신농촌개발전략'으로 인정했다.

우간다 새마을시범마을 중 하나인 키우구마을의 식수사업

중앙회는 1973년부터 2023년까지 149개국 6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라오스, 우간다 등 22개국에 118개 시범마을(2024년 포함)을 조성해 새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정부의 대외전략과 연계하여 시범마을을 13개국, 56개 마을(아시아 5개국, 아프리카 4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중남미 2개국)로 확대하며, 헌신적이고 역량 있는 현지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 국가별 특성, 사업 연차 등을 반영한 맞춤형 초청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에서부터 튼튼한 구조를 갖추다 새마을운동 추진 역량 강화 #4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운동이라는 사명감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똘똘 뭉쳐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지키며,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미래의 새마을운동을 이끌 청년·대학생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발굴도 주요 목표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처럼 올해도 대학새마을운동과 청년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해 MZ세대와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더불어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공간인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새마을운동 정책방향, 국내외 사례분석 등의 기능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며, 미래 새마을운동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새마을운동은 머물지 않고, 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 발전 중이다.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 '지구촌 공동번영 구현', '창의적·혁신적 지도자 양성'이라는 새마을운동의 목표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새마을운동은 진행형이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자세를 말하다

유경철 소통과 공감 대표

어떤 리더가 공동체를 이끄는지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된다.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은 물론 동호회처럼 작은 모임에서도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리더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소통과 공감' 유경철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리더와 리더십을 알아보자.

글. 이원복 사진. 한인섭

유경철

·(現)소통과 공감 대표
·한국코치협회 인증 전문코치
·2021년/2020년 인재경영 기업교육 명강사
·2020년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리더십 기업교육 명강사 대상
·2015년 한국 HRD 명강사 대상

[저서]
《HBR 리더십 인사이트》(2024)
《성과를 내는 팀장의 완벽한 리더십》(2022)
《나는 팀장이다》(2020)
《완벽한 소통법》(2018) 외

공동체를 성공으로 이끄는 리더

우리는 좋은 리더를 만나고 싶어 하거나 스스로 좋은 리더가 되려고 노력한다. 공동체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는 데는 반드시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경철 대표는 좋은 공동체는 좋은 리더가 있어야 이뤄짐을 강조한다.

"공동체라고 하면 수익을 달성하든 인지도를 높이든,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 목표잖아요. 좋은 리더가 없어도 구성원들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리더가 좋은 성과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여러 기업에서 증명되었죠."

그렇다면 좋은 리더는 무엇일까.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해 왔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지금 시대에는 어떤 리더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유경철 대표는 서슴없이 '능력이 있는 리더'라고 말한다.

"리더라면 소통 능력이나 솔선수범하는 자세, 책임, 배려, 존중, 경청 등의 요소를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이끌고 발전시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죠.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기괴한 언행과 행보를 보여도 성공한 리더로 각광받는 이유는 성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번째 요소로 품성을 꼽았다. 품성이 좋은 리더는 구성원으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얻고, 리더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는 공동체가 위기를 마주했을 때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해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만약 리더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구성원들은 이에 공감하고 한 번 더 리더를 믿어보기 때문이다.

"리더라면 무엇보다 공동체를 이끌고 발전시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는 마인드셋

좋은 리더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유경철 대표는 새마을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역시 리더로서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새마을운동이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세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구성원을 아우르는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에 오르고 있는 MZ세대가 중시하는 게 바로 자율성이에요. 규칙이나 리더의 지시를 중시하면서도 자율성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탄탄한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기존의 마인드셋(Mindset)을 버려야 합니다. 즉 사고방식을 바꾸고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죠."

'전적으로 리더의 말을 따라야 해', '항상 조직이 우선이야'라는 고정된 사고방식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른 이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력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오래된 사고방식은 다짐이나 생각만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뇌과학자들은 생각을 바꾸려면 100일 동안 '타인의 말을 잘 듣자'라는 문구를 직접 종이에 써 보라고 추천해요. 다이어트와 비슷하죠.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이를 실천하는 게 쉽지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은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죠."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리더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리더는 누구보다 먼저 실천하고,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야 한다.

역사를 바꾸는 **새마을지도자**의 **역량**과 **지도력**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활동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돼야 하는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국 각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은 이웃과 지역을 위한 봉사의 삶으로 새마을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글. 박용기 영남일보 중부지역본부 기자

마을과 한 나라를 바꾼 새마을지도자들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 봉사와 범국민적 참여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손꼽힌다. 특히 청도·포항 등 새마을운동 발상지와 새마을운동 중흥지 구미가 있는 경상북도에는 이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빛나는 활약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곳이 청도군 신도1리와 포항시 문성리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청도군 신도1리는 우리나라 다른 농촌과 같이 가난에 찌든 마을이었다. 새마을운동 기록 등에 따르면 마을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인물은 김봉영 씨다. 김 씨는 토목과를 졸업한 뒤 부산에서 건설회사를 설립해 경영했으나, 조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기 위해 귀향한 뒤 고향 마을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귀향 후 1957년 마을 이장을 맡은 김 씨는 주민들과 힘을 합쳐 조림 사업, 제방 공사, 지붕 개량, 농로 개발, 신거 간이역 설치, 전기가설, 감나무 단지 조성 등의 시업을 벌였다. 주민들은 먼저 길을 넓혀야겠다고 생각하고 당시 마을 뒤쪽 골짜기 뒤실마을과 현재 위치인 새터마을을 잇는 '토끼길' 2.5km를 40여 일 만에 폭 4m의 농로로 만들었다. 신도마을의 새마을운동은 세상에 알려졌고 현재 새마을운동 태동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곳이 됐다.

제1차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가장 우수한 마을은 경상북도 영일군(옛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이었다. 당시 영일군 기계면 지도자 이석걸 씨는 1970년 문성리 홍선표 이장과 함께 지붕 개량, 리어카 공급, 마을 길 넓히기, 농수로 건설, 양잠, 소득 작물 재배 등의 농촌운동을 주도하며 잘사는 마을 만들기에 힘을 쏟아왔다. 홍 이장은 특히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문성리 마을 이장을 역임하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멘트 335포대를 시작으로 문성 부락(문성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며 새마을지도자 역량과 리더십의 모범사례가 됐다. 1971년 9월 17일 문성리를 직접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눈부신 변화를 이룩한 문성 마을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성공 사례를 보고 '전국 시장 군수는 문성마을과 같이 새마을을 만들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한 명의 새마을지도자 역량과 리더십에 의해 한 마을이 바뀌고 더 나아가 한 나라가 통째로 변화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이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역량은 세계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새마을중앙회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사업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각국에 현지 새마을시범마을 조성하고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다. 국가의 문화, 마을의 특성, 사업 연차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새마을교육과 사업을 통해 현지 주민의 의식과 역량을 제고했다. 그 결과 곳곳에 여러 새마을조직이 만들어졌으며, 현지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마을환경개선과 소득증대 등 많은 변화를 스스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도 빠질 수 없다. 지난 1월, 미래를 이끌 새마을지도자인 대학새마을동아리와 청년새마을연대가 함께 해외봉사단을 꾸려 피지, 라오스, 동티모르 등에서 약 2주간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새마을운동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건물 기초 공사, 도색과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일의 새마을운동을 성공으로 견인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새마을운동이었고, 그 중심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저출생을 비롯해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가 공동체 해체와 빈부 격차 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해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난날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과거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들의 뛰어난 역량과 지도력이 새마을운동과 우리의 내일도 바꿔나가길 기대해 본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된 '잘살기 운동'이다. 활동은 각종 문서와 편지, 성공사례 원고, 사진과 영상 등으로 제작됐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성공적인 농촌 부흥의 원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024년 '새마을 타임즈' 코너에서는 한국 농촌 근대화의 실록인 새마을운동기록물 중 만화 이야기를 각색해 전하고자 한다.

다시 보는 새마을운동 이야기 ep. 1

갯마을을 농지로 바꾼 기적

경기 화성군 팔탄면 노하3리 새마을지도자 홍성직

염분이 많고 잡초가 무성해 쓸모없던 땅. 그 땅을 개간해 논농사가 가능하게 한 새마을지도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홍성직 지도자이다. 그의 의지와 실천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당시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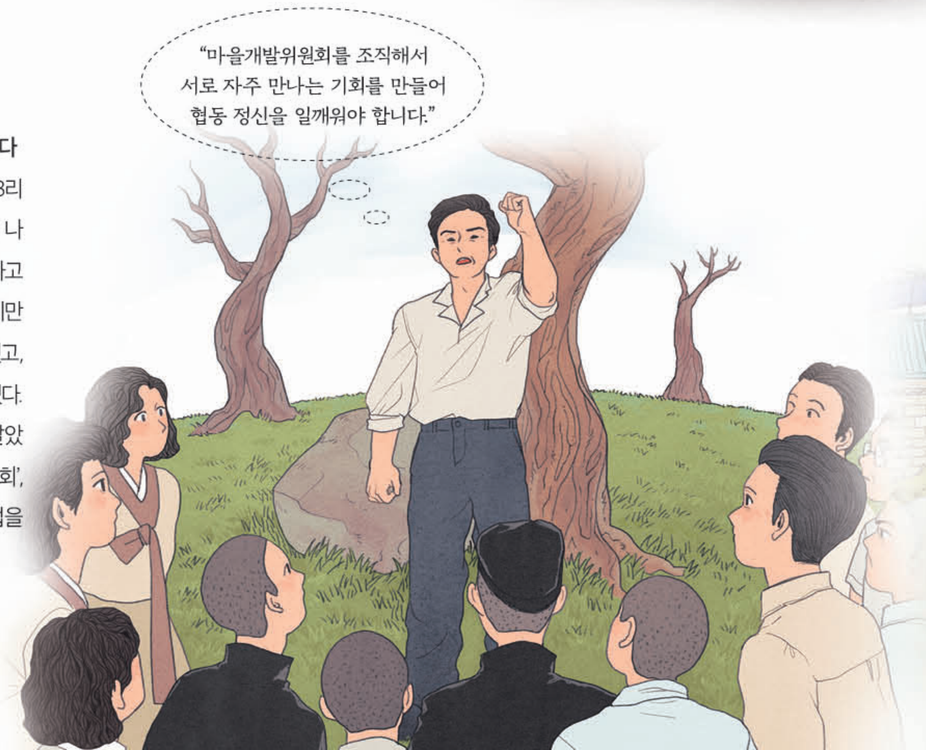
일러스트. 정재은

변화한 노하리의 전경(출처: 화성시청)

『광명의 지도자』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1. 마을 조직을 구성해 협동심을 고취하다

홍성직 지도자는 경기 화성군 팔탄면 노하3리의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다. 늦은 나이에 국민학교에 입학했지만 조기졸업하고 이후 서울대 농과대학에도 합격했다. 하지만 가정 형편상 입학 대신 군 복무를 선택했고, 마을로 돌아와 본격적인 계몽활동에 나섰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함을 알았기에 '마을개발위원회'를 조직했고, '4-H회', '선봉회', '부녀회' 등을 만들어 마을 사업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2. 몸소 실천하여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다

홍성직 지도자는 1967년, 마을의 소득증대 방안을 구상한다. 바로 간석지에 논을 개답(논을 새로 만듦)하는 것. 사람들은 갯바닥에서 농작물이 자라겠냐며 반대했다. 그는 남들의 비웃음을 격려로 여기며 직접 1,983㎡(600평)의 논을 일궈 쌀 8가마를 수확했다. 이를 본 주민들은 홍성직 지도자를 따랐다. 그렇게 마을은 3년 만에 호당 1ha(약 3,025평)에 가까운 농지를 얻었다. 공동답도 4.1ha(12,500평)로 이곳에서 123만 원의 공동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3. 새마을운동의 불을 지펴 모두가 잘사는 곳으로

새마을운동의 불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홍성직 지도자는 1973년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됐다. 그가 먼저 한 일은 바로 마을 진입로 확장 등 마을 환경 개선이었다. 진입로 인근 땅을 소유한 일부 주민이 반발했지만,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들려주거나 직접 찾아가 설득했다. 이후 새마을회관 건립, 주거시설 개선, 새마을금고 조직, 작목반 조직을 통해 마을은 발전했고, 1977년에는 우수새마을로 선정됐다. 이후에도 홍성직 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느끼며 모든 구성원을 똘똘 뭉치게 해 마을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우리 손으로 활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다

2023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 '최우수'
강원 평창군 진뚜루마을공동체

어떻게 하면 작은 마을을 활기차고 사람들이 오가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관심에서 시작된 강원 평창군 용평면의 진뚜루마을공동체는 마을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마을을 활기찬 곳으로 바꾸었다.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용평면 유종성 협의회장(가운데)과 정해옥 부녀회장(오른쪽)

마을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의 시작

강원 평창군 북서부의 용평면은 인근 지역에 있는 이효석문화마을과 효석문화제, 월정사, 오대산 등 유명 관광지로 가는 길목에 자리해 유동 인구는 많지만, 정작 특별한 볼거리가 없어 활기를 띄지 못하는 곳이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용평면 상인연합회 주도로 장평오일장이 문을 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정해옥 용평면부녀회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마을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어느 날 시장을 보니 생각보다 방문객이 적더라고요. 장사가 안되니 시장 상인들도 고민이 많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장평오일장에 오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결론은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었죠. 용평면협의회와 부녀회가 탄소중립 실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왔고, 그중에서도 업사이클링 쪽에 강점이 있으니 이를 접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021년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새마을 단체만의 사업이 아닌,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힘을 썼다. 그 결과 용평청년회, 상가번영회, 용평적십자봉사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주민 모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진 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버려진 나무 팔레트와 캔따개를 활용해 장평오일장 상인들에게 간판을 만들어 주는 일. 용평면협의회와 부녀회가 주도해 나무 팔레트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다듬은 후 정성스럽게 캘리그래피로 상점의 이름을 쓰고 꾸몄다. 버려진 나무 팔레트와 캔따개가 100여 개의 예쁜 간판으로 바뀌어 새로운 가치를 입은 것이다. 상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가게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좋아했고, 장평오일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예쁜 간판에 호감을 보였다. 이를 통해 용평면협의회와 부녀회는 '2022년 강원환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평오일장에 마련된 부스

목공 체험에 참여하는 방문객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도 사례로

마을공동체 덕분에 현재 장평오일장은 평창군에서도 인기 있는 장터가 되었다. 장터에서는 폐목재를 활용한 목공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용평면 협의회와 부녀회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통해 만든 앞치마와 발토시, 폐식용유로 만든 비누 등을 무료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평면 귀촌 주민의 재능기부가 이뤄졌고, 아이디어 상품 개발 및 홍보에 주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덕분에 방문객에게 용평면이 환경을 생각하는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도 전해졌다.

장평오일장이 활성화되면서 플리마켓도 열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물건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수익금으로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해 전달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지역의 변화를 경험한 용평면협의회 유종성 회장은 요즘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동네 분들을 만나면 이번 장날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관심이 늘어났다는 게 체감되죠. 직접 장터에 나와 일손을 더해주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장평오일장에 꼭 한 번 오시길 바랍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즐기고 지역특산품인 감자, 양파, 배추, 산나물도 구경하고 가세요. 5월부터는 산양삼 경매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을을 변화시킨 진뚜루마을공동체는 지난 '2023년 전국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해옥 회장은 "진뚜루마을공동체가 우수 사례로서 평창군 내 다른 지역에도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며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평창군 내 8개 읍면 중 우리 용평면 한 곳만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어요. 지금은 늘어나 5개 읍면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뚜루마을공동체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정말 뿌듯합니다."

너와 나, 우리를 위한 새마을운동

진뚜루마을공동체가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용평면협의회와 부녀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움직였다. 여기에 더해 새마을운동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지도자들의 노력과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정해옥 회장은 지금까지 함께해 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용평면에는 15개리가 있어요. 평창군에서 두 번째로 작은 규모이지만, 단결력만큼은 최고입니다. 광역회원까지 총 5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창 바쁜 농번기에도 서로의 빈자리를 메꿔주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용평면협의회와 부녀회는 마을공동체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나서며 구슬땀을 흘린다. 폐농약병 수거, 하천 정화, 계절반찬 나눔, 김장 나눔, 음식물쓰레기통 청소, 1일 찻집 운영 등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각자의 본업에도 신경 써야 하지만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는 이유는 새마을운동이 지역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종성 회장은 일정이 있을 때 참여하지 못하면 본업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아내를 따라서 시작한 새마을운동인데, 지금은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 번 시작한 이상 맡은 일에 책임은 다해야 하잖아요. 협의회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 지도자일 때도 그랬고요. 열심히 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특별한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요한 기금은 회비와 폐농약병 수거,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판매, 플리마켓 등으로 직접 마련한다. 규모는 작지만 누구보다 알차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용평면협의회와 부녀회의 자부심이다.

앞으로 진뚜루마을공동체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평오일장에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만들고, 상인들의 참여도 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해옥 회장은 더 열심히 달리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모든 사람에게 '장평오일장에 가면 볼거리가 정말 많더라'라는 입소문이 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목표한 바는 어떻게든 해낼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직접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

지역과 이웃을 위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한 일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일로 발전했다. 선한 영향력을 더 넓은 곳에 퍼뜨리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는 진뚜루마을공동체. 이들이 이뤄내는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해 보자.

현장에 방문한 평창군협의회 최기철 회장(왼쪽 첫 번째)과 부녀회 전금자 회장(왼쪽 두 번째)

부산광역시 북구부녀회
유선희 회장

주민과 함께, 이웃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세상

2023 전국 시도·시군구부녀회 종합 평가 '최우수'

유선희 부산광역시 북구부녀회장

꽃샘추위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산광역시 북구에는 꽃 피는 봄이 조금 일찍 왔다. 지난 2월 '2023 전국 시도·시군구부녀회 종합 평가'에서 부산 북구부녀회가 시군구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유독 상과는 인연이 없었던 부산 북구부녀회를 1등으로 만든 유선희 회장을 만났다.

글. 유범선　사진. 손호남

헌신과 노력으로 얻은 성과

봄에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함에도 우리는 매년 봄꽃의 자태와 향기에 감탄하게 된다. 새마을부녀회의 모습도 그러하다. 그들의 봉사와 헌신, 노력은 얼핏 당연해 보이지만, 마침내 주위를 정화하는 선한 영향력은 봄꽃을 보는 듯 감탄이 절로 나온다.

모두가 찬사받아 마땅한 새마을부녀회에서 올봄과 특별히 어울리는 유선희 부산 북구부녀회장을 만나보았다. 지난해 '2023 전국 시도·시군구부녀회 종합 평가'에서 시군구 최우수상을 받은 소감을 묻자 모든 회원이 고생한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우리 13개 동회장님과 회원들께서 고생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급하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동회장님들이 다 맞춰주시고 어떤 요청도 불평불만 없이 다 따라주셨고요. 이번에 9개 동회장님들께서 임기를 다해 물러나셨는데,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산 북구부녀회는 그동안 상과는 인연이 없었다. 부녀회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동회장 시절의 유선희 회장은 마음에 차지 않았다.

"우리 중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죠. 다들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속상했죠. 그래서 만약 내가 회장이 되면 부산에서 1등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하다 보니 전국에서 1등을 하게 됐더라고요."

부산 북구부녀회의 자랑은 화합이다.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나눔과 돌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 부산에서 부지런하고 일 욕심 많은 리더와 잘 따르고 능력 좋은 팀원이 만든 환상적인 조화였다.

부산 수산물 이용 홍보

노인시설 급식 및 식자재 정비 봉사

마음 아파서 시작한 봉사

부산 북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관광객이 많고 해변을 마주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 부산의 북쪽에 있다 보니 오히려 시골과 가깝고 최초 커다랗던 구역이 강서구, 사상구 등으로 분리됐다. 북구에는 신도시로 개발된 곳도 있지만, 11평 남짓의 영세민 아파트에 거주하며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유선희 회장은 어려운 지역주민을 보면서 고향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한다. 부산으로 시집오고 통장을 맡게 되면서 힘들었던 예전 생각이 난 것이다.

"통장을 하면 집마다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다니다 보면 어렵고 힘든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마음은 계속 아프고. 그래서 통장을 그만두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결심을 가족에게 말하자 통장을 하면 월급이 나오는데, 오히려 돈을 쓰는 새마을부녀회장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냐는 우려를 들었다. 유선희 회장은 그래도 이 길을 선택했다.

부산 북구새마을회가 위치한 구포는 국수가 유명하다.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국수, 유선희 회장은 동회장이 되면서 동네 어르신에게 국수를 대접해 드렸던 기억이 깊이 남아있다.

"당시 1% 나눔운동으로 후원금 250만 원이 모였어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국수가 생각난 거죠. 사실 국수 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국수를 드시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해맑게 웃으시면서 '회장 고맙데~ 잘 먹고 간데~' 이러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작은 국수 하나에."

유선희 회장은 그 일을 겪은 후 무엇이라도 작은 도움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다.

탄소줄이기 체험활동 때 만든 화분을 든 유선희 회장

희망 빨래방 사랑의 세탁 지원

새마을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봉사로 따뜻해지는 부산 북구

부산 북구부녀회 '1% 나눔운동'의 모금액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데, 유선희 회장의 노력이 크다. 총 2,390여 만 원 중 838만 원을 모금했다. 방법은 단순했다.

"식당을 가든 누군가를 만나든 모금 용지를 쓱 내밀어요. 어려운 분들 돕는 일이잖아요."

용기 있는 유선희 회장만의 특기일 수 있다. 이렇게 모인 모금액은 여러 기부금 등과 더해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쪽방촌 지원',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누기'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되고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과 캠페인에도 사용되었다.

올해 연임하며 제18대에 이어 제19대 부산 북구부녀회장이 된 유선희 회장에게 앞으로의 꿈을 물었다.

"지금처럼 계속 봉사하는 것이 목표예요.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언젠가는 경로잔치 한 번 크게 열고 싶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젊은 날 열심히 고생하신 어르신들께 잔치 한 번 성대하게 열어드리는 것이 제 임기 중에 이루고 싶은 목표 중 하나에요."

강릉에서 태어나 새로 인연 맺은 부산을 위해 30년 가까이 지역민에게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선희 회장. 부산 북구부녀회가 최우수상을 받은 그날은, 그동안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인정받는 기쁜 날이었다. 올해도 열심히 달려 부산에서 1등을 놓치지 않겠다는 유선희 회장의 다짐만큼 '부산 북구부녀회'의 올해는 봄처럼 따뜻하길 희망한다.

청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는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남다른 열정으로 지난해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기대감 가득한 개강을 맞아 함께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청주대새마을동아리를 만나 올해의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글. 이원복 사진. 이재승

나를 성장시키는 새마을운동!

2023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 '최우수'
- 청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 -

청주대 주변 환경정화 활동

영상으로 만나는
청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

Q 안녕하세요. 〈새벽종〉 독자에게 청주대새마을동아리를 소개해 주세요.

김찬호_ 청주대새마을동아리는 지난 2021년 9월에 창립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체적으로 활동했고, 지난해부터 청주대학교 정식 중앙동아리로 승격하면서 봉사활동에 뜻을 가진 학우들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유빈_ 지난해에는 자체사업 7회, 중앙회공모사업 2회, 기타연계사업 14회 등 새마을운동 관련 활동을 총 23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활발히 활동한 덕분에 2023년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얻은 것 같아요.

Q 주로 어떤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나요?

김찬호_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연대 강화'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회장인 저를 비롯해 이채원·지유빈 부회장 그리고 임원들이 함께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합니다.

이채원_ 동아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시험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활동합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많은 곳에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방학 중이어도 상관없었죠.

Q 오늘은 어떤 활동을 위해 모였나요?

지유빈_ 학교 주변을 우리 손으로 정화하면서 봉사 동아리의 역할을 수행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먼저 우리 주변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잘 가꿔야 우리에게 다른 봉사도 믿고 맡기지 않을까요.

이채원_ 중앙동아리 가두모집을 통해 지원한 회원들과 함께 한 첫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신입 회원들과 유대감을 키우기 위함도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협동심을 키우는 거죠. 이는 청주대새마을동아리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Q 청주대새마을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유빈_ 회원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봉사활동이 시작됐다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 나서는 회원들의 열정도 한몫하죠.

김찬호_ 여기에 더해 정식 중앙동아리로 승격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점 그리고 오롯이 새마을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청주시새마을회의 아낌없는 지원까지 삼위일체가 되어 지금의 청주대새마을동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Q 가장 보람 있었거나, 큰 의미를 얻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이채원_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취약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었는데, 저는 다른 회원들과 주방을 담당했죠. 기존에 있던 선반을 뜯어내고, 새로운 선반을 설치하면서 바뀐 주방을 보고 좋아해 주실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실제로도 정말 좋아해 주셨고요. 힘들었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지유빈_ 경로당에 찾아가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나눔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면부터 소스까지 직접 만들었는데, 어르신들께서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새마을동아리로 활동하면서 봉사가 단순히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짜장면 나눔 봉사

Q 직접 새마을운동에 참여해 보니 책에서 배운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김찬호_ 부끄럽지만 이전에는 새마을운동에 관한 기본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전임 회장이었던 김성민 선배의 권유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새마을운동에 관한 이야기와 정보를 찾아보니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민운동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자긍심도 생겼습니다.

이채원_ 예전에는 몰랐지만 조금만 관심을 두고 찾아보니 전국 어딜 가나 새마을운동 깃발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새마을운동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새마을동아리로 활동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지를 알았고,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쳐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생신상

알록달록 물들이는 청춘

Q 우리 지역과 사회에 새마을운동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찬호_ 새마을동아리로 활동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새마을운동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유빈_ 개인이 가진 힘은 약하지만 많은 사람의 힘이 모여 이뤄지는 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힘을 모으는 매개체가 바로 새마을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Q 올해 청주대새마을동아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계획인가요?

이채원_ 동아리의 단합력을 더 키우고, 신입 회원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좋은 인식도 심어주고자 합니다. 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봉사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낼 거예요.

김찬호_ 올해는 더욱 내실을 다지고 질적 팽창을 통해 봉사동아리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여 청주 내 다른 대학교에도 새마을동아리가 만들어지는 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로 거듭나는 게 목표입니다. 청주대새마을동아리를 잘 지켜봐 주세요.

세계인이 함께한 새마을운동

숫자와 키워드로 보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농촌개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공동체운동이다. 과거 마을과 지역 단위의 공동체를 가장 중시했던 때의 새마을운동은 우리 주변에서 그 역할을 다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여겨지는 지금도 마찬가지. 새마을운동은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서 지구촌 공동체의 번영을 구현하고 있다.

글. 편집실

지구촌공동체 운동으로 확산

새마을운동은 UN,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개발도상국 발전에 적합한 지역개발의 모델로 인정받으며 지구촌 곳곳에 뻗어갔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현지화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그랬듯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는 여러 나라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자본 축적에 지대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 특히 새마을정신과 원리에 입각한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

아시아

라오스

라오스의 시범마을은 대부분 소득증대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 공동의 소득 창출 방안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비가림하우스 건설, 하우스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돋보인다.

#소득증대 사업 중심 #공동소득 창출
#자발적 참여

렁캔

10동
비가림하우스 건설

월 1~2회
마을총회 개최

폰응암

770명
마을회관 시설 개선 및 분리수거시설 건설 참여 인원 (누적분)

항씽싸왕

80%
마을 총회 참여율

마을회관, 공공화장실 건설, 지하수 관정 2개소 건설

후아이싸이

12동
비가림하우스 건설

70% 이상
전체 가구 중 수로 및 전기 시설 작업 참여율

동티모르

동티모르의 시범마을 4곳 모두 새마을회원 수가 증가했고, 부녀회와 청년회 같은 마을 조직이 결성됐다. 특히 새마을잡화점을 운영하고 비가림하우스 등을 건설했다.

#새마을운동 참여 증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
#복지 및 편의성 증대

비켈리

어업용품 및 잡화점 운영 시설 완공

레퀴투라

각 10개 동
비가림하우스, 육묘용 소형 하우스 건설

급수시설 및 관개수로 설치

셀로이 카라익

새마을잡화점 건설 및 마을환물대출 사업

벨로이

새마을잡화점 건설 및 마을환물대출 사업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새마을시범마을 4곳을 지역개발사업의 정책 모델로 활용 중이다. 또한 시범마을 모두 인프라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개발 정책 모델화 #주민 생활 편의 향상
#자발적 노동력 부담

프레이 로미트

환경 개선
마을 회관 및 어린이집 위생 시설

룸똘 뜨마이

80% 이상
전체 가구 중 사업 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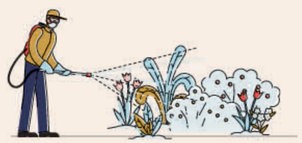
춘렁 음루

1 곳
시범마을 중 유일한 여성 마을지도자

70%
여성 회원의 비율

오묵뜩

교육 및 생활 개선
유기농 살충제, 비료 생산을 위한 농축산 교육 등



아프리카

우간다

우간다의 시범마을은 각 마을의 특성과 형편에 맞는 적합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공동의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새마을교육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전파하고 새마을지도자를 육성 중이다.

#맞춤형 소득증대 사업 #새마을지도자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

잠비아

잠비아는 각 지역과 협력하여 새마을운동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4개 시범마을은 모두 2024년 사업으로 인프라 개선 사업을 계획 중이다.

#중앙-지역정부 간 협력 #주민 생활편의 향상
#인프라 및 소득증대 사업

세타

50만 UGX(약 $130)
바나나 재배(5에이커 규모)로 주 1회 얻는 수익

칼라갈라

19만 UGX(약 $50)
과일 건조 사업 수익
양봉, 유칼립투스 등 자체 사업 시행

키우구 마을

320만 UGX(약 $853)
6개월간 의자, 텐트 임대사업 수익

카삼비아

총 2만 5,000그루
파인애플(2에이커), 바나나(4에이커), 옥수수(2에이커) 식재

샤쿨리아

2명
새마을지도자 선출

10명
새마을개발위원회 회원 수

난두바

의료 시설 간호사 사택 건립 추진
새마을지도자 선정 및 새마을개발위원회 구성

수나

500만 UGX(약 $1,304)
마을회관 부지 구매

3 에이커
바나나와 파인애플 재배 사업 규모 (각 1.5에이커)

키왈라시

4,300그루
유칼립투스 묘목 식재

78kg
고부가가치 작물 바닐라 빈 수확량

캉구루미라

1만 5,000 UGX/kg
파인애플 수확 및 건조 사업 수익

3 에이커
나무 식재 규모

므와치야바

5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마을 내 공동체

난센가

3개소
마을 우물 복원·건설 사업 예정
새마을지도자 선정

부룬디

부룬디의 시범마을은 각 마을의 특산물 교역을 통한 '가치사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새마을운동 참여 증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
#복지 및 편의성 증대

부소로

환경 개선
배수로 제방 보강, 마을 안길 정비 등

마을 기금 운영 및 생필품 분배
부녀회 주도

은야비시가

70만 BIF(약 $244)
감자, 양파 등 판매 수익

42만 BIF(약 $147)
천연 비료 원료(토끼 오줌) 판매 수익

루지바

150만 BIF(약 $523)
연 4회 파인애플 수확으로 얻는 수익

42.9%
냔자락 팜오일 판매 추산 이윤

은야비라바

240만 BIF(약 $837)
영양풀 사업 연간 예상 수익

부케예

250그루
1ha 부지에 팜트리 식재, 팜오일 가치사슬 구축

30% 이상
소액 대출 혜택을 보는 주민

300만 BIF(약 $1,047)
마을 기금 보유액

루게레게레

환경 개선
마을 안길 정비

소득 증대
묘목장 운영, 벼·망고 농사, 양돈 사업

중남미

온두라스

온두라스의 시범마을 4곳 모두 5년간의 사업을 완수했다. 현재는 커피 가공소, 양계장 등 소득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5년간의 사업 완수 #식수 판매 등 소득 사업
#새마을 제빵소 사업

팔미찰 카르멘

영농비즈니스센터 건립
식수 활용 소득사업(식수 판매)

엘 미스테리오

또르띠야 판매점 건축 및 기기 구매
필요 물품 조달용 오토바이 구매

라 플로리다

제빵소 및 새마을장터 건축

쿠얄리 마을

새마을 제빵소 리모델링 및 기계 구비

칭찬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다

새마을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는 요즘, 칭찬을 하거나 받는 일이 부쩍 줄어든 느낌이다. 칭찬을 전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상대방의 노력에 작은 관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 칭찬을 주고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이뤄가는 새마을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새마을가족의 칭찬 릴레이는 다음호 〈새벽종〉으로 이어집니다.

부녀회

든든한 지역사회 봉사자 곽명순 충청북도부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우선 칭찬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칭찬해 드릴 분은 곽명순 충청북도부녀회장님입니다. 곽명순 회장님은 1987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목동리 부녀회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7년간 끊임없이 봉사활동을 이어와 타인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From 김정임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

"칭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임 회장님의 칭찬은 따뜻한 속삭임이자 빛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더 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곽명순 충청북도부녀회장

협의회

뛰어난 리더의 자질을 갖춘 김맹수 경기도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협의회를 이끄는 김맹수 회장님은 조직 발전과 시군협의회장단의 지도력 강화를 위해 1박 2일 과정의 리더십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덕목과 자질 향상 교육에 피교육생으로도 참여하는 모범을 보인 김맹수 회장님, 존경합니다.

From 양윤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새벽종〉 3+4월호 희망에세이의 칭찬자로 지명해 주신 양윤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만큼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화합하고 소통하며, 누구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맹수 경기도협의회장

직장·공장협의회

온화한 리더십의 새마을전도사! 박경호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박경호 회장님은 제주시새마을회장 및 직장·공장회장을 역임하며 제주 지역 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화한 성품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마을지도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제주 새마을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From 전문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회장님의 마음가짐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열정은 제게 귀감이 됩니다. 칭찬을 받아 영광이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경호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문고

우리 사회에 큰 빛을 발하는 선각자 박병숙 문고 경북 김천시 대항면분회장님을 칭찬합니다.

박병숙 회장님은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에 헌신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또한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문화 예술의 선각자입니다. 회장님의 헌신으로 새마을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의 집합체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자 소통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From 김종철 새마을문고중앙회장

"칭찬을 받고자 한 일이 아니라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 대항면 회원님들과 함께 새마을문고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철 문고중앙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병숙 문고 경북 김천시 대항면분회장

청년새마을

미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이혜건 대외협력부장님을 칭찬합니다.

이혜건 부장님은 시각장애인·어르신 영정 초상화 그리기 활동을 통해 '미술로 눈을 뜨게 한다'는 큰 뜻을 품고 청년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 '청년새마을연합회(@blue_bird0617)'를 운영해 팔로워를 증가시키는 등의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From 배진호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장

"응원을 보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 믿습니다. 다양한 꿈을 품은 청년들이 모인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는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이어받고 미래로 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혜건 대외협력부장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소속)

대학새마을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문초원 신한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님을 칭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문초원 회원님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늘 주변 사람을 돕고, 최근에는 해외봉사 같은 주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는 동아리 부회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며, 상냥한 말투와 배려 넘치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웃게 합니다.

From 신유빈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으로서 생각만큼 회장님을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했지만, 칭찬 메시지를 보니 큰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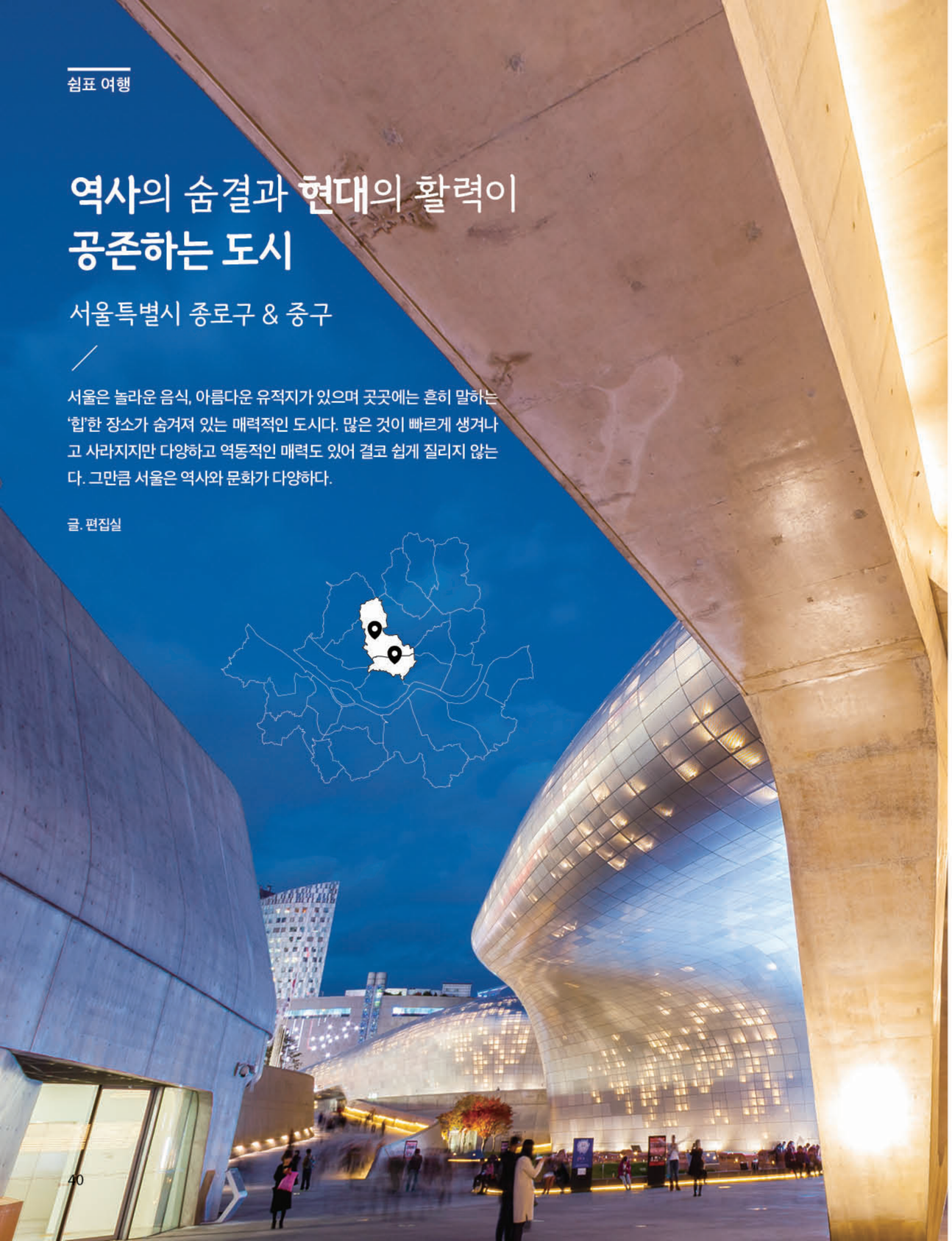
문초원 신한대학교 새마을동아리 부회장

역사의 숨결과 현대의 활력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 중구

서울은 놀라운 음식, 아름다운 유적지가 있으며 곳곳에는 흔히 말하는 '힙'한 장소가 숨겨져 있는 매력적인 도시다. 많은 것이 빠르게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다양하고 역동적인 매력도 있어 결코 쉽게 질리지 않는다. 그만큼 서울은 역사와 문화가 다양하다.

글. 편집실



도심 속 힐링의 공간 '청계천'

종로구와 중구 사이를 가르는 청계천은 청계광장 인근에서 시작해 성동구까지 10.84km 정도 이어진다. 긴 길이만큼이나 인상적인 것은 청계천에 얽힌 역사다. 조선시대부터 수도 한양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서 도성 안 사람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했고, 풍수지리상 명당수였으므로 이를 잘 가꾸기도 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6.25한국전쟁 시기에는 갈 곳 없는 이들이 모인 곳이었다. 고향을 잃은 이들은 청계천 변에 판잣집을 만들어 살았고 재봉틀을 구해 옷을 만들어 팔면서 시장을 형성한 것이 오늘날 평화시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도시 경관과 위생 관리를 목적으로 1955년 하천을 아스팔트로 덮어버리면서 주변 판잣집을 헐었다. 그렇게 컴컴한 지하에 있던 청계천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40년 만인 2005년이다. 서울시가 사람 중심의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복원사업을 실시했고 이제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의 공간으로서 사랑받고 있다.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며, 주말에는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이 펼쳐지는 문화공간의 기능도 한다.

청계천을 따라 걷다가 만나는 다양한 생물자원 또한 색다른 즐거움이다. 도심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쇠백로, 왜가리, 돌고기, 피라미, 배추흰나비, 애기똥풀, 꽃마리 등 약 300여 종의 생물이 청계천에 서식한다.

청계천의 야경을 즐기는 사람들

연등으로 꾸며진 청계천의 모습

74년 만에 공개된 비밀의 공간 '청와대'

대통령이 살던 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지난 1948년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의 거처와 집무실, 주요 국빈 맞이 공간으로 활용된 비밀의 공간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지난 2022년 국민에게 개방되었고 현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 및 체험학습 장소로 탈바꿈하였다.

청와대 정문으로 들어서면 저 멀리 북악산을 배경으로 한 채 멋지게 서 있는 '청와대 본관'이 눈에 들어온다. 푸른빛의 기와와 아름다운 곡선을 자랑하는 지붕은 그야말로 한국의 미 자체다. 이외에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했던 '대통령 관저', 귀빈을 모시거나 행사장으로 사용된 '상춘재', 기자 회견 장소로 유명한 '춘추관' 등은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매력을 자랑한다.

청와대는 자연과 어우러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날씨가 좋다면 '무궁화 동산'과 '녹지원'은 필수

우뚝 솟은 북악산과 청와대 본관

코스. 녹지원 한가운데에 있는 반송(소나무의 한 종류)은 수령이 170여 년으로 추정되며, 수형이 매우 아름다워 청와대를 대표하는 나무로 손꼽힌다. 무궁화 동산에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나라꽃인 무궁화와 각종 야생화를 관찰해 보는 것도 좋다.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북악산으로 오르는 새로운 코스도 열렸다. 춘추관에서 시작해 백악정을 지나 북악산으로 향하는 코스로 역대 대통령들이 종종 이 길을 통해 산을 올랐다고 한다. 인적이 드물었던 만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 이곳을 걸으며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숨결도 느껴보자.

이색적인 디자인의 건축물 'DDP'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대 건축물을 꼽으라면 단연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일 것이다. DDP는 여성 건축가 최초로 건축 분야 대표적인 상인 '프리츠커 아키텍처 프라이즈'를 수상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 1950~2016)'의 유작이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위치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수도권 전철 2·4·5호선 환승역과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각종 전시, 패션쇼, 신제품 발표회가 이루어지는 단골 장소로 많은 이들이 찾는다. 일반적인 직육면체의 건물과 다르게 DDP는 곡선 위주의 비정형 건물로 특별한 매력이 느껴진다. 광고나 K-Pop 뮤직비디오 촬영지로도 각광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DDP의 진가는 밤이 되면 드러난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은빛 건물을 비추면 마치 거대한 우주선처럼 보이기도 한다. 야간에 유동 인구가 많은 동대문 상가와 어우러져 낮보다 밤에 더 역동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특히 DDP 외벽을 거대한 캔버스 삼아 펼쳐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 '서울라이트'는 멋진 빛의 예술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환하게 빛나는 DDP의 외관

서울의 낙조와 야경이 있는 '낙산공원'

DDP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우리나라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과 흥인지문공원이 보인다. 이곳에서 낙산공원으로 이어지는 낙산성곽길이 나온다. 등산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낮은 코스지만 본격적인 여정에 나서기 전 잠시 한양도성박물관에 들러 600년 넘게 서울을 지켜온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박물관에서 숨을 골랐다면 이제 낙산성곽길을 따라 약 125m의 낙산을 올라가 보자. 낙산공원은 주자창도 잘 마련돼 있어 오래 걷기가 힘들다면 차량을 이용해 근처까지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

낙산공원은 서울의 야경명소 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다. 넓게 트여 먼 곳까지 보이는 도시의 불빛과 한양도성을 비추는 은은한 조명이 우리를 사색으로 이끈다. 이곳에서 보는 일몰도 아름다우니 해 질 무렵에 올라 노을과 야경을 한번에 보는 것을 추천한다. 바로 옆 이화벽화마을에는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카페도 있으니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과 하나둘 불이 켜지는 도시의 풍경을 즐겨 보자.

한양도성과 시내 야경

놓치면 안 될 축제 소식

함께한 궁중문화, 함께할 국가유산 2024 궁중문화축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2024 궁중문화축전이 '함께한 궁중문화 함께할 국가유산'이라는 슬로건으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시 내 주요 유적인 '5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과 '종묘'에서 열린다. 궁중문화축전은 고궁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대 문화유산축제로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연 2회 개최되며, 고궁음악회와 뮤지컬 등 공연과 전시 그리고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궁궐 전각과 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객에게 잊지 못할 시간과 경험을 선사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수문장 교대의식', '별빛야행', '공생: 시공간의 중첩', '스탬 프투어' 등이 있다. 또한 궁중문화축전 특별 관람권인 '궁패스'를 구매하면 축전 기간에 서울의 5대 궁궐을 횟수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다. 도심 속에서 우리나라 궁중문화의 숨결을 느끼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궁중문화축전으로 향해 보자.

일시: 4월 27일(토)부터 5월 5일(일)까지
장소: 서울시 내 '5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과 '종묘'

탄소중립 패션이 뜬다

청바지로 멋과 환경을 지키자

유엔(UN)이 발표한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르면 패션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실제로 청바지 한 벌을 제조하는 데 약 7,000리터의 물이 사용되는데, 이는 4인 가족이 5~6일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이다. 옷을 아껴 입고, 다시 입는 것만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이다.

글. 이원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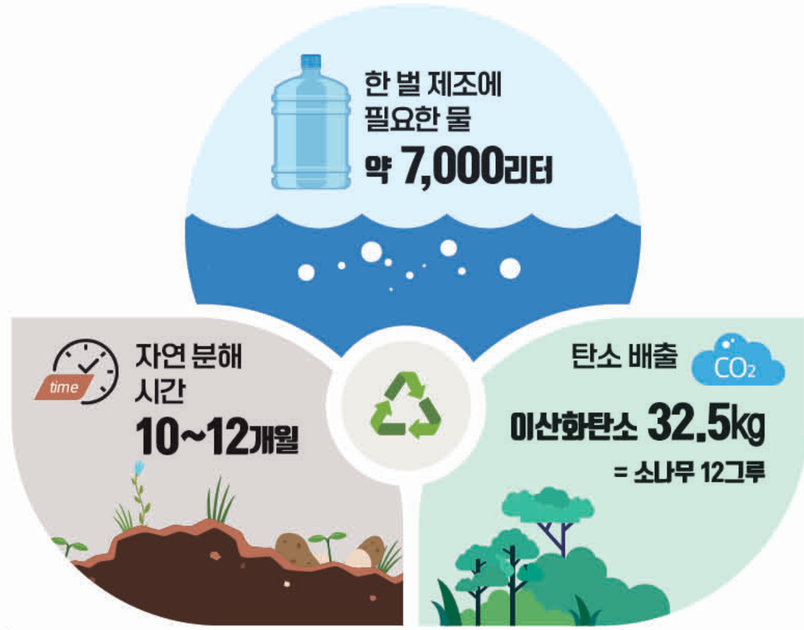
패션산업의 새로운 과제
'지속가능한 패션'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가 탄소중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패션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로 만든 옷의 생산을 줄이거나, 친환경 원단을 활용한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점차 탄소중립에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의류 업사이클링을 통해 버려지는 옷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 가치를 두고 있는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진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가치를 더한 것을 말한다. 지난 2021년 제76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BTS 멤버들이 국내 친환경 의류 브랜드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입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청바지 업사이클링으로 탄소중립 실천

업사이클링하기 좋은 옷 중 하나가 바로 청바지다. 청바지의 원단인 '데님(denim)'은 작업복 원단으로 사용될 만큼 강한 내구력을 갖췄다. 험하게 입어도 옷감이 쉽게 상하지 않아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재단·재봉만으로도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재봉틀이 있다면 청바지의 기본 형태를 유지한 채 다리 부분을 잘라내고 손잡이를 다는 것만으로도 예쁜 가방이 만들어진다. 손바느질만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 청바지 다리 부분을 원통 모양으로 원하는 크기만큼 자른 후 한쪽을 재봉하면 책이나 테블릿PC 등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된다. 또 청바지의 주머니 장식을 떼어 다른 가방에 붙기만 해도 멋진 디자인이 연출된다.

청바지는 유행을 타지 않는 만큼 이를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세탁 시에는 찬물을 사용하고, 뒤집어 빨아야 옷감 손상과 색바램이 적다. 무엇보다 청바지는 매번 세탁할 필요가 없다. 오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5회 정도 착용 후 세탁하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벤트

〈새벽종〉 읽고, 탄소중립 실천하고!

직접 청바지를 업사이클링해 만든 물건이나 **올바른 세탁 방법**을 실천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다음호 〈새벽종〉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에게는 **1만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내용: 직접 촬영한 사진(2M 이상)과 소개글(200자 이내)
보내시는 방법: QR코드 스캔 후 파일 첨부

중앙회

제2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

2023 동계 새마을해외봉사단은 지난 1월 17일 중앙회에서 사전교육 수료식과 발대식을 개최하고 약 2주간 라오스, 동티모르, 피지 등에서 해외봉사를 펼쳤다. 청년새마을연대 14명, 대학새마을동아리 49명 등 총 63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현지에서 노력봉사, 재능봉사, 교육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현지 문화 체험을 마치고 지난 2월 16일 부산시 회의실에서 2023 동계 새마을해외봉사단 해단식을 가졌다.

정기대의원 총회 및 회원단체별 정기총회

중앙회는 지난 2월 29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돌아보고, 2024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각 회원단체별 정기총회에서 전문수 직장·공장중앙협의회장이 17대 회장으로 연임 선출됐으며 양윤호 중앙협의회장, 김정임 중앙부녀회장, 김종철 문고중앙회장이 신임 선출되어 중앙회장단이 새롭게 구성됐다. 이밖에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도 제3대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장으로 신유빈(신한대) 학생을 선출했다.

보츠와나·우간다·케냐 정부 고위급 관계자 내방

지난 3월 19일에 보츠와나 대통령 비서실장 일행이, 3월 28일에 우간다 국회 부의장과 케냐 국회 부의장이 중앙회에 내방했다. 이들은 각각 김환학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국의 새마을운동 추진상황과 국제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새마을운동 추진·확산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새벽종 제작 및 설치

중앙회는 지난 3월 27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벽종'을 자립관 앞 종각에 설치하고 타종식을 가졌다. 새벽종 규격은 높이 140cm, 둘레 80cm, 무게 250관(937.5kg)으로 새마을지도자와 임직원의 기부금을 통해 제작됐으며, 1983년 제작된 기존의 '새벽종'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철거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서울

서울특별시새마을회장 이·취임식

서울특별시새마을회(회장 김연포)는 지난 2월 7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관내 25개 구 새마을회장단 및 유관단체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8~19대 김일근 회장이 이임, 김연포 회장이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2024 읍면동 회원단체 회장 및 총무교육

부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지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새마을회관 강당에서 2024년 읍면동 회장 및 총무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교체된 회장단을 중심으로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회계의 투명성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각 읍면동의 사업일지와 회계장부 활용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마을 기반 새마을운동을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구

직장·공장협의회·대학새마을동아리 라오스 해외봉사

직장·공장대구시협의회(회장 권기준)는 지난 1월 14~22일 대구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및 직장·공장협의회 회장 등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라오스 루앙프라방 넝쩡마을 빡능초중고등학교, 수파누봉대학교에서 지구촌협력사업을 펼쳤다.

인천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 이·취임식

인천광역시새마을회(회장 이황일)는 지난 3월 26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유관단체 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황일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김의식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광주

온기나눔 실천운동

광주광역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는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나눔 실천운동을 펼쳤다.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위한 급수 봉사와 홀몸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추진했다. 사랑의 떡국 나누기와 더불어 명절 음식과 쌀, 생필품 등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명절을 함께 보내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대전

중증장애인시설 사랑의 성금 전달

직장·공장대전시협의회는 지난 3월 15일 박영복 전 직장·공장협의회장, 오세은 대덕구 직장·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관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하람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더불어 유관단체 및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중인 자원봉사, 기부·자선행사 등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고자 온기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울산

청년새마을연합회 정기총회

울산 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이심경)는 지난 2월 15일 새마을회관 7층 회의실에서 구군 청년새마을연대 회장단 및 사무국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새마을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이심경 연합회장은 "'꿈의 도시 울산, 청년새마을과 함께'라는 기치로 새마을운동의 세대이음에 동참하자"고 요청했다.

세종

미래마을 만들기 실무교육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지난 3월 14일 새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새마을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은 실천운동가로서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특색사업 발굴과 살고 싶은 마을인 '세종형' 미래마을을 구상했다.

경기

신임회장단 리더십 교육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교원가평비전센터에서 31개 시군새마을회장, 협의회장, 부녀회장, 직장·공장회장, 문고회장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각각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임 시군 회장단의 리더십 배양 △임원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핵심역량 강화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및 기본적 소양과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 이·취임식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홍순선)는 지난 3월 14일 동해시 뉴동해관광호텔에서 제18대 박형배 회장과 제19대 홍순선 회장의 이·취임식을 열었다. 취임식에서 홍순선 회장은 "더욱 낮은 자세로 지도자 및 회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과 따스함이 넘치는 도민의 벗으로서의 새마을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충청북도새마을회장 이·취임식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2월 27일 경화대반점 대연회장에서 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년간 충북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이끈 이화련 회장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공로패 수여, 이·취임사, 새마을기 이양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22대 충청북도새마을회 회장으로 취임한 남재호 회장은 쌀 4,000kg을 효성병원과 관내 11개 시군새마을회 등에 전달하며 따듯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

깨끗한 농촌환경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성낙구)는 3월 28일 서산시 해미면 국제성지 앞 주차장에서 충청남도,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3개 기관과 '깨끗한 농촌환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시하는 농촌 폐기물 수거 및 숨은자원찾기 운동에 적극 협력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이다.

전북

온동네방네 온기 나눔 온기 더하기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2월 23일 정읍시새마을회관에서 도내 결손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한 온기 더하기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도교육감, 도회원단체장, 정읍시새마을회장 등과 새마을지도자 5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장조림 등 반찬꾸러미 350개를 전달했다.

전남

탄소중립 실천 위한 나무심기 운동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3월 26일~27일 이틀 동안 22개 시군 900여 명이 동시에 참여하여 잣나무, 낙엽송, 은목서, 수국 등 2만 그루를 심었다.
양재원 회장은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에 다함께 동참하자"고 말했다.

경북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이종평)는 지난 2월 20일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에 참석해 국가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1,000여 명의 지역 주요 인사들과 함께 저출생 위기 대응 의지를 다졌다. 경상북도새마을회는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저출생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했다.

경남

경상남도새마을회장 이·취임식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윤원섭) 제20대·21대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3월 21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도새마을회 임원, 시·군회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도지사 감사패 수여, 윤원섭 신임회장 취임사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각 회원 단체별 정기총회에서 최만환 협의회장이 연임하고, 곽영순 부녀회장, 조순녀 문고지부회장이 선출됐다.

제주

회원단체별 정기총회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회장 김정임)는 지난 1월 24일 새마을회관에서 2024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8대 홍경애 회장을 제주도부녀회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직장·공장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성범)도 지난 2월 7일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박경호 회장을 직장·공장 제주도협의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북5도

사랑의 생필품 나누기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1월 9일 이북5도청 1층 로비에서 생활용품 도소매업체인 ㈜진서인터내셔널에서 기부한 여성 방한화 600켤레(3,000만 원 상당)를 월드비전에 300켤레, 종로구새마을회에 100켤레, 평안남도(북한이탈주민)에 150켤레,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 50켤레를 각각 달하는 '사랑의 생필품 나누기' 사업을 전개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서울 종로구새마을회(회장 박내춘)는 지난 2월 2일 설날을 맞아 17개동 기초수급자 및 틈새가정 340가구에 떡국떡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서울 성동구협의회(회장 정재화)는 지난 3월 13일 도시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사랑의 꾸러미 나누기를 진행했다.

•서울 광진구부녀회(회장 전태연)는 지난 3월 17일 노륜산시장 앞 도로에서 2024 서울마라톤(제94회 동아마라톤) 구간의 진행요원으로 활동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협의회(회장 김윤성)는 지난 3월 12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방문해 생활 가재도구 정리, 쓰레기 철거 작업 등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서울 은평구 불광1동부녀회(회장 장미화)는 지난 2월 7일 저소득층 이웃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떡국떡 100kg, 라면 등을 전달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부녀회(회장 이종임)는 지난 3월 14일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행복동행 맛있는 음식 만들기를 실시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3동부녀회(회장 박순선)는 지난 1월 31일 명절을 앞두고 떡국떡과 사골곰탕을 포장해 저소득 어르신 50명에게 전달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부녀회(회장 송영복)는 지난 2월 5일 관내 소외계층에 떡국떡, 곰탕 등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인천 동구새마을회(회장 김민철)는 지난 2월 7일 설을 맞아 이웃을 위한 떡국떡 550상자를 구청에 기부했다.

•인천 강화군 선원면부녀회(회장 유갑희)는 지난 2월 5일 명절을 앞두고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소외계층 56가구에 쌀국수와 달걀을 전했다. 양도면부녀회(회장 김애경)는 지난 3월 8일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3가구에 달걀, 요구르트 등 사랑의 간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강원 춘천시 퇴계동협의회(회장 조세연)는 지난 3월 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어려운 학생을 발굴해 장학금 및 쌀, 라면을 전달했다. 효자1동부녀회(회장 강순분)는 지난 2월 5일 설을 맞아 지역 경로당에 기부할 김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강원 원주시 호저면협의회(회장 이병민)는 지난 2월부터 20여 일간 원주농협과 협업해 지역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토와 비료 운반 등 일손 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중앙동협의회(회장 김홍수)와 부녀회(회장 이성희)는 지난 2월 21일 대보름을 맞아 준비한 오곡밥과 각종 나물 등 음식 꾸러미를 관내 어려운 이웃 30가구에 전달했다.

•강원 강릉시 송정동부녀회(회장 조영임)는 지난 2월 27일 관내 16개 경로당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강원 태백시 구문소동부녀회(회장 김한순)는 지난 2월 26일 관내 취약계층 8가정에 각각 250장씩, 연탄 총 2,000장을 전달했다.

•강원 속초시새마을회(회장 김강석)는 지난 2월 24일 속초해수욕장 해변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를 열고 속초시민 및 관광객에게 어묵과 두부김치를 나눴다.

•강원 홍천군 홍천읍협의회(회장 노봉용)는 지난 3월 13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40만 원을 기탁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강원 횡성군 횡성읍협의회(회장 선승환)와 부녀회(회장 함영숙)는 지난 2월 4일 다목적센터에서 설맞이 '사랑의 떡 나눔'을 통해 저소득층 200가구에 떡과 전, 물김치를 전했다.

•강원 영월군 영월읍부녀회(회장 정정란)는 지난 1월 30일 아이코리아 영월군지회와 함께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만두 7,100개를 여성회관의 공유 냉장고에 기증했다.

•강원 평창군 봉평면협의회(회장 김철형)와 부녀회(회장 김영숙)는 지난 2월 23일 관내 경로당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해 첫 장수식당을 열어 어르신 약 150여 명에게 찰밥을 제공했다.

•강원 철원군새마을회(회장 조경하)는 지난 2월 16일 알루미늄 캔 및 병뚜껑 등 자원 모으기 사업을 통해 모은 수익금 총 300만 원을 지역 내 6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강원 인제군 북면부녀회(회장 정옥수)는 지난 1월 20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탄소중립 실천

•직장·공장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김문종)는 지난 3월 17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줍깅데이를 실시해 한강변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했다.

•서울 성북구새마을회(회장 류복수)는 지난 3월 27일 북악골프장 일원에서 제79회 식목일 기념해 구청과 함께 나무심기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1동협의회(회장 유재영)와 부녀회(회장 박미선)는 지난 2월 5일 새해맞이 마을 대청소를 진행했다.

•인천 미추홀구부녀회(회장 강화옥)는 지난 3월 6일 학익동 새마을회관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한 '친환경 재생비누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인천 계양구 작전1동협의회(회장 정승표)는 지난 3월 9일 봉오대로 화단 주변에 철쭉 300그루를 심으며 도시녹화 운동을 진행했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협의회(회장 임달호)는 지난 3월 8일 대룡리 공영주차장부터 시장 내외부, 주택가 주변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강원 속초시 조양동협의회(회장 양승만)는 지난 3월 9일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입주민과 시민이 모아놓은 아이스팩을 수거했다.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협의회(회장 이영후)와 부녀회(회장 한순임)는 지난 3월 8일 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광치터널 일대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강원 고성군 간성읍부녀회(회장 김인선)는 지난 3월 19일 회원들 함께 폐식용유를 이용해 재생 비누를 제작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 부산 북구새마을회(회장 이세창)는 지난 2월 23일 덕천3동, 만덕2동, 만덕3동에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이불 세탁 지원 활동을 펼쳤다.
- 부산 해운대구 좌1동부녀회(회장 김봉희)는 지난 2월 19일 장산노인복지관에서 급식 활동을 진행했다.
- 부산 금정구 서2동부녀회(회장 김성숙)는 지난 3월 7일 부곡경로식당에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홀몸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했다.
- 부산 수영구 남천1동협의회(회장 전정근)는 지난 2월 16일 관내 방범 취약지구에 관할 지구대원과 합동 방범순찰을 진행해 주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도왔다.
- 부산 사상구협의회(회장 박복이)와 부녀회(회장 조혜옥)는 지난 2월 6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10가구 및 전체 120가구를 선정해 설맞이 제수용 생선을 만들어 전달했다. 주례1동부녀회(회장 유정미)는 지난 2월 21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오곡밥과 보름나물을 전달하는 정월대보름 건강 기원 복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 대구 서구 평리3동부녀회(회장 남정옥)는 지난 2월 29일 복성원(대표 정해순)과 함께 어르신 300여 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 도우미 활동을 실시했다.
- 대구 달성군 다사읍협의회(회장 홍종대)와 부녀회(회장 조영숙)는 지난 3월 15일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천교에 설치된 낡은 새마을기 60여 개를 교체했다.

- 울산 남구 수암동부녀회(회장 안정)는 지난 3월 나눔과 섬김의 집을 방문해 배식 활동을 실시했다. 신정3동부녀회(회장 변명숙)는 지난 3월 관내 홀몸 어르신 댁을 방문해 주거공간 청소 및 분리배출 활동을 진행했다.
- 울산 동구 방어동부녀회(회장 박정희)는 지난 2월 16일 방어진 소재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배식활동을 실시했다.
- 울산 울주군 상북면협의회(회장 박대규)와 부녀회(회장 김태희), 문고(회장 조수연)는 지난 1월 18일 폐영농자재를 수거해 모금한 사랑의 이웃 돕기 성금 10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경기 안산시 백운동협의회(회장 한명호)와 부녀회(회장 이진숙)는 지난 2월 22일 관내 홀몸 어르신 80명에게 떡국 및 밑반찬을 전달했다.
- 경기 평택시 청북읍부녀회(회장 임연숙)는 지난 3월 14일 취약계층에 직접 조리한 두부부침, 소불고기, 미역 등 밑반찬을 전달했다.
- 경기 파주시새마을회(회장 김경선)는 지난 2월 2일 파주쌀 10kg 300포를 읍면동 새마을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 경기 시흥시 신천동협의회(회장 이종복)와 부녀회(회장 최인이)는 지난 3월 5일 어려운 가정과 노인정 총 45곳에 휴지를 전달했다. 목감동협의회(회장 김종석)와 부녀회(회장 송영미)는 지난 3월 2일 순살치킨을 독지가에게 후원받아 관내 어려운 이웃 30가구와 나눴다.
- 경기 양주시 백석읍부녀회(회장 이성일)는 지난 3월 11일 관내 모범 학생 8명에게 장학 증서와 사랑의 장학금 320만 원을 전달했다. 직장·공장 경기 양주시협의회(회장 오수영)는 지난 3월 15일 회천노인복지관에 추어탕 200인분을 후원하고 권준진 양주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직장·공장협의회 회원들과 배식 활동을 펼쳤다.
- 제주 제주시부녀회(회장 강길선)는 지난 2월 27일 새마을알뜰매장 급식실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300명을 대상으로 결식 예방 및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희망 도시락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탄소중립 실천

- 부산 금정구부녀회(회장 김영순)는 지난 2월 6일 관내 무료 급식소 부곡경로식당 인근에서 낙엽, 쓰레기, 화단 잡초 등을 수거하는 새마을 줍깅을 펼쳐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 대구 달성군 옥포읍협의회(회장 최태영)와 부녀회(회장 신점선)는 지난 1월 31일 기세곡천 하천변 일원에서 담배꽁초, 일회용컵 등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 울산 동구협의회(회장 김수득)와 부녀회(회장 안영숙), 문고(회장 오정연)는 지난 3월 6일 울기등대 일원에서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을 수거하는 새마을 플로깅데이를 실시했다.

- 경기 안산시 백운동협의회(회장 한명호)는 지난 3월 12일 일회용품 사용 금지, 쓰레기 분리수거,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등 자원 재활용을 통한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홍보하고,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나눠주는 활동을 진행했다.
- 경기 평택시 비전1동부녀회(회장 손정숙)는 지난 3월 11일 봄을 맞아 환경 정비의 하나로 관내 화단 정비 및 봄꽃 심기 행사를 추진했다.
- 경기 시흥시새마을회(회장 김근환)는 지난 3월 16일 신천 하천 정화 활동으로 부유물 제거하고 하천 주변 및 도로 위 공장지대를 청소했다.

- 경기 이천시 마장면협의회(회장 지윤정)와 부녀회(회장 이희자)는 지난 3월 6일 해월리에서 이평리에 이르는 하천변 쓰레기 및 영농 폐비닐, 빈 병 등을 수거해 탄소중립 실천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 경기 포천시 가산면부녀회(회장 이한숙)는 지난 2월 29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수거 사업을 전개해 가정에서 입지 않는 옷, 이불, 신발 등을 수거하며 재활용을 독려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했다.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협의회(회장 김영욱)와 부녀회(회장 김효숙)는 지난 3월 15일 부항리 일대에서 개나리꽃 묘목을 심었다.
- 세종시협의회(회장 원광희)와 부녀회(회장 허기분)는 지난 2월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탄소중립 생활 수칙 실천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전동면협의회(회장 강선영)와 부녀회(회장 최금자)는 지난 2월 5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도로변과 전동IC 주변을 청소했다.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부녀회(회장 이영미)는 지난 2월 4일 관내 하모해수욕장에서 하모1리 하수종말처리장 구간까지 설맞이 대청소 줍깅데이를 전개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대전 동구 중앙동부녀회(회장 강경순)는 지난 2월 7일 설을 맞아 관내 5개 경로당에 방문해 떡국떡과 만두를 전달했다. 홍도동부녀회(회장 김선자)는 지난 2월 2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나물을 만들어 나눔 냉장고를 채우고 관내 홀몸 어르신에게 전했다. 효동부녀회(회장 강성자)는 지난 2월 5일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떡국떡을 나누는 바자회를 개최했다.

•대전 중구 석교동협의회(회장 고주현)와 부녀회(회상 박옥순)는 지난 2월 2일 설맞이 바자회에서 김, 미역, 다시마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부녀회(회장 최경해)는 지난 3월 4일 3.1절을 맞아 게양했던 태극기를 수거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광주 서구 화정1동부녀회(회장 신금덕)는 지난 2월 7일 돌봄 이웃 36세대 및 4개의 돌봄 센터에 떡국떡 및 참기름 나눔을 실시했다. 유덕동협의회(회장 박종관)는 지난 2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총 200만 원 상당의 쌀 10㎏ 30포, 라면 30상자, 달걀 60판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광주 남구 주월1동부녀회(회장 박현숙)는 지난 3월 15일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제철 유기농 채소 나눔 및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협의회(회장 곽한균)와 부녀회(회장 가은희)는 지난 3월 19일 새동네 경로당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떡국을 직접 끓여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충남 공주시 중학동협의회(회장 정인묵), 부녀회(회장 오연욱)는 지난 2월 26일 사랑의 반찬 나누기 행사를 실시해 육개장과 물김치 등을 홀몸 어르신, 저소득층 가구 등 취약계층 60가구에 전달했다.

•충남 논산시 취암동부녀회(회장 전재영)는 지난 2월 15일 관내 버스 승강장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및 불법 스티커 제거를 실시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를 소독했다.

•충남 계룡시부녀회(회장 이장미)는 지난 2월 14일 출산 장려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 끓인 미역국을 산모 13명과 편부 및 조손가정 청소년 중 생일을 맞은 2명에게 제공했다.

•충남 당진시청년새마을연대(회장 김복만)는 지난 2월 21일 신평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학생들을 위한 간식을 전달하고 레몬청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충남 청양군 대치면협의회(회장 윤종범)와 부녀회(회장 권중숙)는 지난 2월 6일 수정초등학교를 찾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협의회(회장 최영석)는 지난 2월 22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임산부 10명에게 탄생아 출산용품을 지원했다.

•충남 서천군새마을회(회장 권순우)와 협의회(회장 임현규), 부녀회(회장 정종희)는 지난 1월 23일 특화시장 화재현장 복구를 위해 힘쓰는 분들을 위해 어묵탕을 제공했다. 장항읍부녀회(회장 서순제)는 지난 3월 8일 지도자들과 함께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경북 안동시 서구동부녀회(회장 이옥의)는 지난 1월 18일 홀몸 어르신 등 관내 어려운 이웃 120가구에 떡국떡 및 달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경북 구미시새마을회(회장 하준호)는 지난 3월 1일 제105주년 3.1절을 맞이해 구미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국기 게양을 독려하는 '나라사랑 국기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북 문경시 점촌2동협의회(회장 한주열), 부녀회(회장 권점분)는 지난 3월 16일 새마을 영농작업장에서 '사랑의 옥수수 심기' 사업을 실시했으며 오는 7월 수확을 통해 얻은 판매 수익금으로 연말에 지역 홀몸 어르신과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도울 예정이다.

•경북 영양군 석보면협의회(회장 구재학)와 부녀회(회장 신순봉)는 지난 2월 5일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을 개최해 관내 소외계층 40가구에 쌀을 전달했다.

•충북 제천시새마을회(회장 박경배)는 지난 3월 5일 송학면 사회인야구장 주변 일대 도로 사면과 송학면 진입로를 순회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쓰레기 5톤가량을 수거했다.

•충북 음성군 소이면협의회(회장 권기원)와 부녀회(진숙자)는 지난 2월 28일 3.1절 105주년을 맞이해 관내 3.1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충남 아산시새마을회(회장 김동수)와 협의회(회장 홍담선), 부녀회(회장 송명선)는 지난 3월 15일 선장면 군덕리~신문리 일원 삽교천 지류 약 5km 구간 청소를 진행해 쓰레기와 폐가전· 폐타이어 등 대형폐기물을 수거했다.

•충남 계룡시 엄사면협의회(회장 박인수)와 부녀회(회장 이성희)는 지난 3월 9일 관내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협의회(회장 노도준)와 부녀회(회장 박옥분)는 지난 3월 8일 '숨은 자원 찾기' 사업를 통해 공병, 농약병, 폐비닐 등을 수거했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협의회(회장 이범웅)와 부녀회(회장 김종예)는 지난 3월 8일 봄을 맞이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쓰레기를 수거했다.

•경북 안동시부녀회(회장 김경란)는 지난 3월 14일 낙동강변 둔치 주차장에서 자원 재활용 및 탄소중립 실천으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운동을 실시했다.

•경북 상주시 동성동부녀회(회장 박영연)는 지난 2월 16일 봄맞이 새마을 환경 정비활동을 실시해 관내 주요 도로변 일대 불법 광고물 제거 및 각종 쓰레기 수거 등을 펼쳤다.

•경북 성주군새마을회(회장 노기철)는 지난 3월 15일 읍면협의회 및 부녀회와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을 전개해 1톤 트럭 34대, 총 96t의 폐농약병과 폐농약 봉지류를 수거했다.

탄소중립 실천

•대전 동구 홍도동부녀회(회장 김선자)는 지난 2월 29일 가정에서 모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200kg을 수거해 지회에 전달해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동참했다.

•대전 유성구 진잠동부녀회(회장 박복희)는 지난 2월 2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스팩 수거와 분리 작업을 진행했다.

공동체 문화 조성

•전북 정읍시부녀회(회장 최금순)는 지난 2월 6일 명절을 맞아 정읍애육원을 방문해 화장지, 김, 라면 등 생필품과 먹을거리를 전달했다. 연지동협의회(회장 은종광)와 부녀회(회장 박광애)는 지난 3월 4일 정읍서초등학교 앞에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학생들에게 350여 개의 호신용 호루라기를 전달했다.

•전북 완주군 비봉면부녀회(회장 이인숙)는 지난 2월 정월대보름 축제에서 추운 날씨에 행사장을 찾은 시민에게 급수 나눔활동을 전개했다.

•전북 부안군 동진면협의회(회장 이승용)와 부녀회(회장 한윤자)는 고추장을 담가 관내 지역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취약 계층에 200여 통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전남 목포시 목원동부녀회(회장 김수경)는 지난 2월 2일 홀몸 어르신 집을 방문해 집안 쓰레기를 수거하고 대청소를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하당동부녀회(회장 김수정)는 지난 3월 15일 이로파출소와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골목길, 원룸촌, 공원을 중심으로 안심 순찰을 실시했다.

•전남 나주시부녀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2월 29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115가구를 선정해 사랑의 밑반찬 나눔을 진행했다.

•전남 광양시 광양읍부녀회(회장 차도순)는 지난 2월 26일 광양읍 YWCA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및 식당 청소를 실시했다.

•전남 담양군 월산면부녀회(회장 김정남)는 지난 2월 21일 1%나눔 후원금으로 라면 27상자를 구입해 면사무소에 전달했다.

•경남 진주시 천전동부녀회(회장 권나경)는 지난 2월 28일 신학기를 맞이해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신발 10켤레를 기탁했다.

•경남 통영시 교통봉사대지대(대장 엄청용)는 지난 2월 9일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중앙시장 앞 삼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실시했다.

•경남 거제시부녀회(회장 유병옥)는 지난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거제시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료품 60여 만 원을 전달했다.

•경남 거창군 부녀회(회장 백진숙)는 지난 3월 28일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 50여 명에게는 마사지 팩, 봉숭아 물들이기 등 재능 나눔활동을 펼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이발과 염색을 해드렸다.

•경남 창녕군부녀회(회장 김봉희)는 지난 3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63회 3.1 민속문화제를 찾은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증식을 제공했다.

•경남 남해군 남해읍협의회(회장 강경균)와 부녀회(회장 조정심)는 지난 2월 7일 관내 한부모 가정 5세대에 과일, 고기, 김, 휴지 등 설 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부녀회(회장 하정미)는 지난 2월 3일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돼지갈비와 베지밀을 전달했다.

•경남 산청군 삼장면부녀회(회장 강순임)는 지난 2월 14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 원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경남 합천군 율곡면협의회(회장 홍타식)와 부녀회(회장 김순화)는 지난 2월 13일 관내 경로당 41개소 및 다문화가정 2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떡국떡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가회면협의회(회장 조영래)와 부녀회(회장 권순화)는 지난 2월 2일 설 명절을 맞아 면내 경로당 31개소를 방문해 쌀강정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탄소중립 실천

•전북 정읍시새마을회(회장 김학구)와 부녀회(회장 최금순), 문고(회장 김영현), 청년연대(회장 송화수)는 지난 2월 7일 설맞이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해 50리터 쓰레기봉투 100장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옹동면부녀회(회장 김인숙)는 지난 2월 28일 도로변에 버려진 불법 쓰레기 줍기 활동으로 봄맞이 청결 운동을 전개했다.

•전남 여수새마을회(회장 황은미)는 지난 3월 14일 마을별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수거하는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을 펼쳤다.

•전남 광양시 봉강면협의회(회장 오후근)와 부녀회(회장 이옥심)는 지난 2월 8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맞이 대청소를 실시해 주요 도로변에 쌓인 각종 생활 쓰레기와 불법 폐기물을 수거했다.

•경남 진주시 이현동부녀회(회장 이순희)는 지난 3월 18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 및 관내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경남 밀양시 하남읍협의회(회장 박철)와 부녀회(회장 신현도)는 지난 2월 28일 각 마을에서 수거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농약병 등 재활용 분류작업을 실시하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을 전개했다. 삼문동부녀회(회장 윤월자)는 지난 3월 11일 관내 버스 승강장 9개소 주변 불법 광고물 및 얼룩 제거,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를 실시했다. 교동협의회(회장 이해식)와 부녀회(회장 김금자)는 지난 3월 18일 밀양아리랑대공원과 추화산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부녀회(회장 김민정)는 지난 3월 9일 새 학기를 맞이해 장승포초등학교 주변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줍는 줍깅데이를 실시했다.

•경남 창녕군 대합면협의회(회장 정석중)와 부녀회(회장 강경자)는 지난 3월 27일 관내 도로변에 새봄맞이 꽃심기 사업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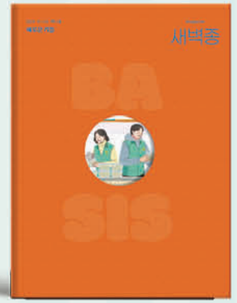
•경남 남해군 남면협의회(회장 윤석자)와 부녀회(회장 김효연)는 지난 3월 18일 공설운동장 옆에서 재활용·다시 입을 수 있는 옷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파지, 고철 등 25톤가량의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경남 합천군새마을회(회장 정성철)는 지난 3월 15일 남정 교차로 좌·우측 화단, 합천댐 주변 원형 화분에 봄꽃을 심는 '아름다운 합천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다. 문고(회장 이현옥)는 지난 3월 21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3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실천 캠페인 실시했다.

새마을 라운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새벽종〉 1+2월호 독자 의견



이진숙

조룡박작은도서관을 애정으로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명 깊었습니다. 특히 공동체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장한

어린왕자가 앉아 있는 그곳! 그곳이 부산이었네요. 동심을 깨워주는 부산 여행! 구석구석 즐거움이 숨어 있는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어요.

전경욱

'새마을운동은 지구촌 환경운동과 생명운동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기고글이 독자에게 큰 공감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새마을운동으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며, 앞으로의 새마을운동 국제개발 협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송세화

마을을 위해 함께 가꾸고 희생한 전남 장흥군 해맑은 수동마을 공동체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한데 어우러져 의기투합했다는 이야기에 '함께'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4월 22일은 새마을의 날

새마을주간 2024.4.19.~4.25.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한 날을 기념하고 국민의 관심과 지속적 추진을 위해 2011년 3월 8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